

< 조사개요 >

1. 조사명

- 2021년 4/4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(BSI) 조사

2. 조사목적

- 분기별 지역 제조업체의 체감경기 파악 및 경기 예측
- 경기 흐름에 따른 정부 및 지자체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 제시

3. 조사대상

- 부산지역 주요 제조업체 500개체(유효 응답 업체 250개체)

4. 조사방법

- FAX를 통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

5. 조사내용

- 전반적인 체감 경기
- 매출, 영업이익 등 부문별 전망
- 주요 업종별 전망
- 최근 경제 및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 모니터링

6. 주의사항

- 각 항목의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비율의 합이 100.0%가 되지 않을 수 있음

7.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의 의미

$$\text{기업경기전망지수} = \frac{\text{호전(증가)표시 업체수} - \text{악화(감소)표시 업체수}}{\text{총 유효응답 업체수}} \times 100 + 100$$

※ BSI 기준치는 100이며, 100을 초과할 경우는 호전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, 100 미만일 경우는 그 반대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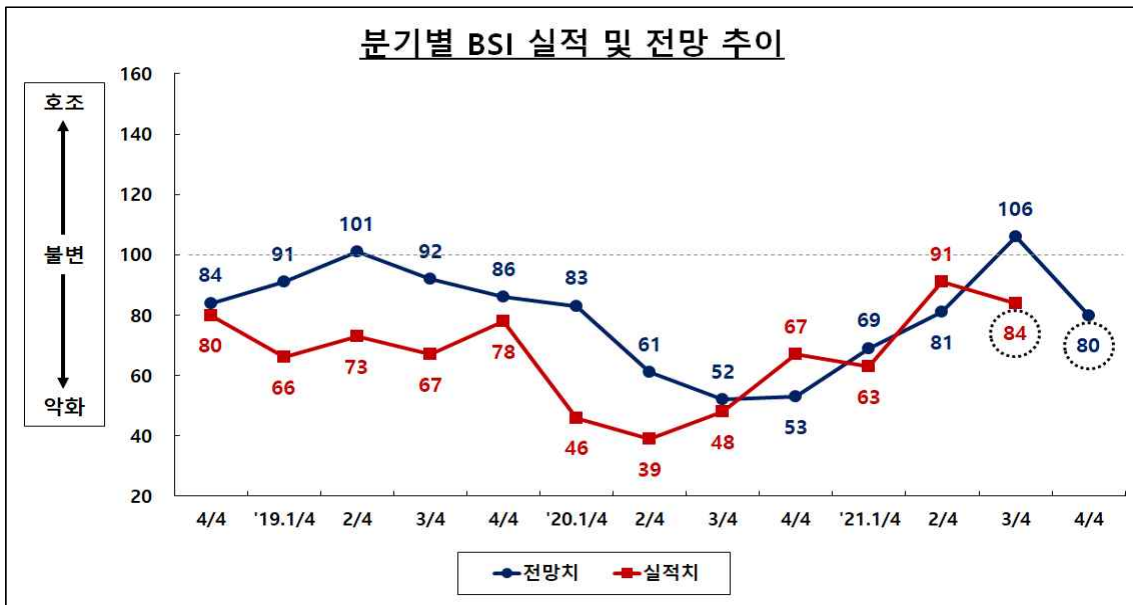
1 전반적 경기 전망

· **제조업 경기전망지수 80**,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 호조가 예상된 직전분기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급락, 연말 제조업 체감경기 불투명

○ 2021년 3/4분기 106 → 2021년 4/4분기 80(전분기 대비 26p 감소)

- 델타·람다 등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돌파감염 등 불안감 확산으로 직전분기 경기회복 기대감 이어가지 못하고 4/4분기 전망지수 80으로 급락
- 지속되는 글로벌 팬데믹과 더불어 美·中 무역 갈등, 금리변동 불확실성 증대, 해운물류 대란 등 각종 대내·외 악재 요인들 다수 존재로 인한 경기 변동성 확대 전망
- 반면,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소비진작이 기대되며 지역 수출실적 또한 점차 개선되는 등 견조한 회복흐름이 예상되고 있어, 단기적 경기하락을 단정짓기는 어려우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필요

○ 2021년 3/4분기 기업경기 실적지수는 84 기록(전분기 대비 7p 감소)



○ 응답기업, 경기 호조보다는 악화 전망에 무게

- 전체 응답 업체 분포를 보면, 경기가 2021년 3/4분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8.8%(147개사), 경기호전을 예상한 업체가

10.4%(26개사), 경기악화를 예상한 업체가 30.8%(77개사)로 집계

- 경기 불변 전망이 가장 높은 가운데 악화 기대감이 호조보다 더 큰 상황

< 2021년 4/4분기 경기전망 응답 분포 >

(단위: 개사, %)

구분	호전	불변	악화	계
응답업체 수	26	147	77	250
구성비	10.4	58.8	30.8	100.0

2 경영 부문별 전망

· 매출, 영업이익, 설비투자, 자금조달 여건, 공급망 안정성, 사업장 · 공장 가동 등 **전 부문에서 지수 100 하회**

○ 매출(80), 영업이익(79)

- 지역 소비 및 수출실적 개선 등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, 코로나-19 변이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지역경기 회복흐름 정체 되고 있으며 물류대란, 원자재 가격 및 수급 불확실성 증대 등 경영 리스크 또한 증대될 것으로 예상

○ 설비투자(82)

- 코로나-19 사태로부터 파생된 각종 대·내외 여건 악화 및 불확실성 증대로 신규 투자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

○ 자금조달여건(77)

-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정책자금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, 매출감소 및 채산성 악화로 기업 유동성 저하될 전망

○ 공급망 안정성(79)

- 원자재 가격 변동성 및 수급 불확실성 확대, 글로벌 해상운임

증가 및 물류량 급증에 따른 운송 지연 등 공급망 리스크 증대

○ 사업장 · 공장가동(81)

- 매출 · 영업이익 등 기업 경영실적 부진, 소비심리 침체 등 지역 경기 둔화 등 대내 · 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요감소로 사업장 · 공장가동을 둔화 전망

< 부문별 BSI 변화 >

구분	실적		전망	
	'21.2/4분기	'21.3/4분기	'21.3/4분기	'21.4/4분기
체감경기	91 →	84	106 →	80
매출액	96 →	84	102 →	80
영업이익	96 →	83	103 →	79
설비투자	106 →	84	104 →	82
자금조달여건	96 →	82	102 →	77
공급망 안정성	94 →	83	99 →	79
사업장 · 공장가동	97 →	84	103 →	81

3 주요 업종별 전망

· 1차금속, 전기 · 전자 제조업을 제외한 **대부분의 업종 악화 전망**

○ 음 · 식료품(65)

- 백신접종확대에 따른 내수회복 기대감이 있었으나, 코로나-19 델타변이 확산 및 돌파감염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업황 부진 및 매출 감소 전망

○ 섬유(56) / 의복(40) / 신발(20)

- 코로나-19 변이종의 영향으로 소비둔화, 해외 공정 생산량 감소 등 업황 부진 전망

○ 1차금속(112), 전기·전자(106)

- 1차금속의 경우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중국 내 철강 감산조치 지속 예상되어 수요대비 공급부족에 따른 제품가격 상승요인 존재
- 자동차 산업의 수출 호조, 조선업의 수주 증가 등 전방산업 실적호조에 따른 수요 증가로 업황 회복 기대

○ 자동차·부품(71)

- 해외 자동차시장에서 국내 브랜드의 점유율 확대, 친환경차 수출 비중 확대 등으로 생산 및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,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과 더불어 지역 완성차업체 실적 부진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

○ 조선·기자재(80)

- 한진중공업, 대선조선 등 중형 조선사들의 경영정상화 및 수주 증가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있으나, 기자재 공정이 착수되어 수요 및 매출증가로 이어지기까지 시차 존재

< 주요업종별 BSI 변화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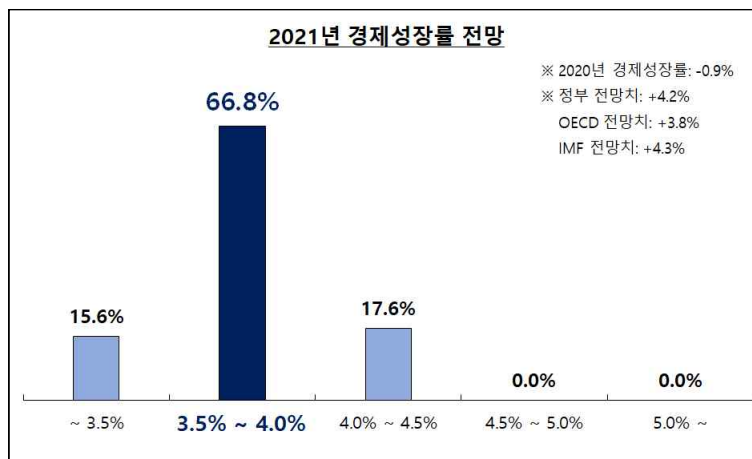
구분	실적		전망	
	'21.2/4분기	'21.3/4분기	'21.3/4분기	'21.4/4분기
음·식료품	87 →	71	100 →	65
섬유제품	87 →	67	93 →	56
의복·모피	120 →	47	120 →	40
신발제품	80 →	27	120 →	20
화학·고무	83 →	96	100 →	100
1차금속	123 →	112	104 →	112
조립금속	65 →	85	95 →	95
전기·전자	115 →	100	130 →	106
기계·장비	108 →	100	112 →	95
자동차·부품	87 →	79	110 →	71
조선·기자재	73 →	90	93 →	80

4 기타 경영사항

□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

○ 응답기업의 66.8%, 올해 경제성장률 3.5%~4.0% 수준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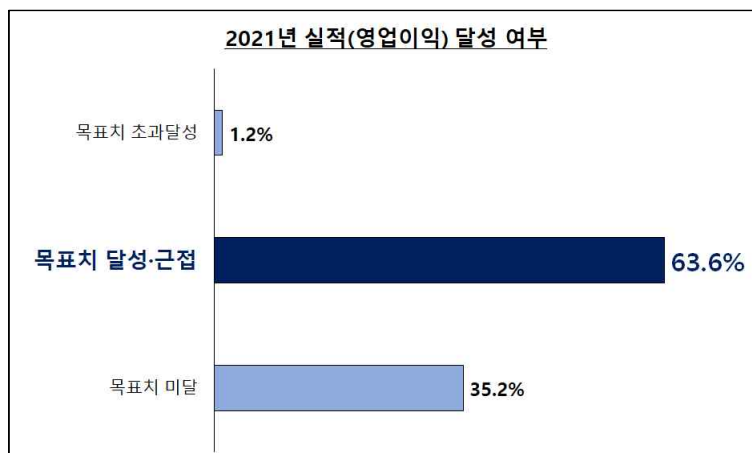
- 다수의 기업인들은 정부 및 IMF 전망치 대비 소폭 낮은 OECD 전망치 수준인 3.5~4.0%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
- 이어 4.0~4.5% 수준으로 전망하는 응답이 17.6%, 3.5% 미만 수준 전망 응답이 15.6%로 집계



□ 2021년 실적(영업이익) 달성 여부

○ 올해 초 계획한 목표 실적(영업이익)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 35.2%에 육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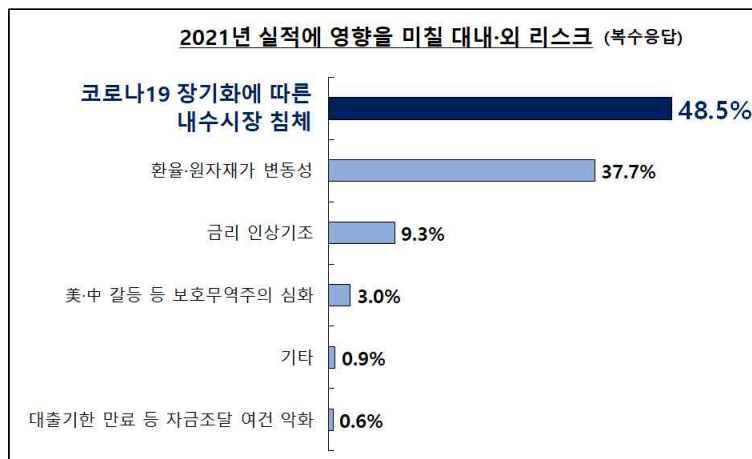
- 목표치 달성 또는 근접 예상하는 기업이 63.6%인 반면 초과달성 가능한 기업은 1.2%에 불과



□ 2021년 경영실적에 영향을 미칠 대내·외 리스크

○ 앞선 실적(영업이익) 달성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대내·외 리스크로 ‘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내수시장 침체’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음

- 이어 환율·원자재가 변동성 37.7%, 금리 인상기조 9.3%, 美·中 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심화 3.0%, 기타 0.9%, 대출기한 만료 등 자금조달 여건 악화 0.6% 순으로 집계



□ 코로나가 가져온 기업 내 변화

○ 대부분의 기업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기업 내 근무환경 및 방식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

- 재택근무제, 비대면 회의 등 업무환경이 변화한 기업이 23.9%로 집계된 가운데 스마트 공장, AI·무인화 등 제조공정의 디지털 혁신기술을 도입한 기업은 1.6%에 불과

